

24.03.20 수요일야간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삭게오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불행한 사내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의 행복, 나눔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져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  
나도 삭게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좋은 것을 얻고 싶다.

24.03.20 수요일야간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오늘 예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나눔의 행복' 이라는 부분이다.  
원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돕고 배려하기는 하지만  
나눔이라는 것을 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받는 사람보다 나누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말도 가슴에 와닿았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앞으로의  
나의 행동과 삶에 변화가 생길 것 같다.

24.03.20 수요일야간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삭게오는 세관으로서 매국노 취급을 받아 불안하고  
고민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과제와 공부에 파묻혀 힘들게 살고 있는 나에게도  
불안과 고민, 피곤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삭게오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절반이나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고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공에만 목 매지 말고 나눔을 실천하자!

24.03.20 수요일야간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만남의 행복**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바뀌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 길로 인도해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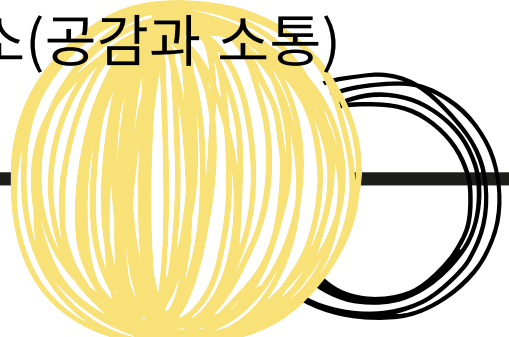
**나눔의 행복**  
나눌 때의 행복은 쌓아둘 때의 행복보다 더 크다.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도 나누는 것의 형태이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돕고 나눌 때 배가 되는 행복이다.

**구원의 행복**  
내 모든 것의 구원, 주님이 주신다.  
나의 행복,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 24.03.21 목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그물질을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말했다. "두려워 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말에 감명받았다. 나는 무엇이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는가. 그걸 고민해보고 두려움을 이겨내어 신뢰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이룰 사람도 얻고 인생을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살고자 한다.

## 24.03.21 목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어나자마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곁에 가족들이 건강히 있는 것, 학교를 다니며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건강, 돈, 가족, 모두를 잃었던 과거가 지금 이렇게 큰 감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서 제 마음의 평안을 책임져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 24.03.21 목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열심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탕을 치고 온 베드로가 기분이 안 좋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이 정말 인상깊었다. 나도 무언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쳐서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마냥 속상해 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24.03.21 목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베드로는 체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것에 이끌리어 사로잡혔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